

#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혁신 이끌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코레일과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미래 모빌리티 최적화 환경 구현  
민간기업·공공기관 협업 지속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 현실화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이 구상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의 개념을 넘어 이동의 가치, 공간의 가치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바로 목적기반 차량(PBV),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중심으로 융합된 모빌리티를 말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역세권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철도공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코레일 스마트역세권사업단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부사장(왼쪽), 현대자동차그룹 GSO 김홍수 부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스마트역세권사업단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홍수 현대차그룹 글로벌전략최고책임자(GSO) 부사장과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동 기획하고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미래 솔루션에 최적화된 환경과 스마트 시티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은 끊임없는 이동성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활용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최적화된 도시 환경 조성하고 서비스를 도입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그룹의 역량을 강화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룹의 역량과 솔루션을 종합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사람, 세상, 미래를 이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철도공사의 뜻이 합쳐져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 신규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한국철도공사 사업지 내·외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등을 협력한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솔루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최적화된 스마트 시티 모델 수립에 협력하며 한국철도공사는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 지구 등에 모빌리티 중심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에 앞장선다.

김홍수 현대차 부사장은 “역세권에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및 연계 서비스를 적용해 새로운 이동 편의는 물론 라

이프 경험을 혁신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을 기획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며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및 솔루션 혁신을 공동 모색하고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기획, 실증, 조성 등 스마트 시티 구축 전 영역에 이르는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민간 기업 및 공공 기관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혁신적 모빌리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며 “도시와 모빌리티는 그 시작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발전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더욱 넓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 수소분야 등 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연초부터 수소사업 조직 축소  
플러그 파워, 지분 매각 전망

미국 수소연료전지 업체 플러그파워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 단위 투자를 단행한 SK그룹의 손실률이 97%를 기록했다. 플러그 파워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SK그룹이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 2021년 SK(주)와 SK E&S(현 SK이노베이션 E&S)가 각각 7억5000만 달러(8000억원), 총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자해 플러그파워 지분 9.9%(5140만주)를 주당 29.3달러에 매입했다. 이후 SK E&S는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JV) ‘SK플러그하이버스’를 설립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수소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하지만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SK의 손실률은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1주당 0.92달러를 기록하면서 1달

러가 붕괴됐고, 전날에는 0.79달러까지 하락하면서 SK의 손실률은 97.3%를 기록했다.

플러그 파워 시각총액은 현재 1조758억원으로 SK가 투자한 1조6000억원 보다 가치가 낮은 상황이다.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에서 상장폐지 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당 1달러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나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플러그 파워에 대한 악재가 지속되면서 SK측도 엑시트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SK(주) 정기주주총회에서 “플러그파워의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하겠다”며 “투자 시점 대비 손실이 큰 상황인 것은 인지하고 있어 적정가치에 대한 엑시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플러그 파워 매각에 대해 처음으로 말했다.

수소 에너지 시장은 초기 기대와 달리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소생산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매출은 증가중이지만 무리한 연

구시설 투자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SK도 이를 인지한 듯 올해 초 SK이노베이션 E&S 수소사업 조직을 ‘부분-본부’ 체제에서 ‘본부-실’ 체제로 개편했다. 수소사업부문은 ‘신에너지사업본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소라는 이름을 단 ‘본부급’ 조직이 사라졌고 신에너지사업본부에서는 수소 이외에 사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수소 산업의 더딘 성장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SK도 조만간 플러그 파워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매각 시점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룹 리밸런싱 차원에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수소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알려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수소 경제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정책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에 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 집권기에는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한화시스템, 4번째 軍 정찰위성 발사

연내 425 사업 마지막 위성 발사

대한민국의 4번째 정찰위성이자 3번째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이 발사됐다.

한화시스템은 군 정찰위성 사업(425 사업)의 4호기 위성이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4호기 위성은 앞서 발사된 SAR 위성인 2·3호기 위성과 마찬가지로 ‘경사궤도’로 지구를 돌며 한반도를 하루 4~6회 촬영한다. 적도로부터 일정 각도만큼 기울어진 궤도를 의미하는 경사궤도는 재방문 주기가 짧아 위성이 하루에도 여러 번 특정 지역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 중인 425 사업은 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 등 총 5기의 한반도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기지에서 대한민국 정찰위성 4호기가 실린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한화시스템

및 주변 감시·정찰용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4번째 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의 차세대 우주무기체계이자 핵심전력 자산 중 하나인 ‘킬체인’의 완성률에 족다는 평가가 나온다.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정찰위성 5호기이자 SAR 위성 4호기는 연내 발사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 HD현대중, ‘USV 개념설계 사업’ 수주

(전투용 무인수상정)

유무인복합체계 선도적 역할 기대

HD현대중공업이 우리 해군과 함께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각광받는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개발을 본격화한다.

HD현대중공업은 해군의 차기 핵심사업이 될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설계 사업’을 해군본부로부터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현존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안보를 지킬 차세대 함정 개발을 이끌게 됐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유인함정을 대신하여 최전방 해역에서 탐색과 근접 교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축이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착수회의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간 전투용 무인수상정에 적용되는 성능, 기술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획득방안을 결정하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설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다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임무 수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유인함정 이상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한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필두로 유무인복합체계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기아 ‘2025 봉고 III EV’ 출시

기아가 국내 소상공인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대표 소형 트럭의 상품 경쟁력을 높인 ‘더 2025 봉고 III EV’를 출시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더 2025 봉고 III EV는 기존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급속충전시간 단축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향상 ▲배터리 지상고 개선 ▲충전구 조명 적용 등 실용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 철수

자회사 하이비차저 청산 절차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시장 환경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진출 3년 만에 사업을 접기로 했다.

2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에코솔루션(ES)사업본부 산하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인력을 내부 다른 조직에 재배치하기로 했

다. 충전기 제조를 맡아온 자회사 하이비차저(구 애플망고)는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기존 공급처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어갈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이번 결정을 전략적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향후 냉난방공조(HVAC),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등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